

“조연 끝! 광주FC 주연 되겠다”

‘터춧대감’ 여름, 임시 주장 맡으며 마음가짐 달라져
“뒤에서 묵묵히 뛰었지만 이제 내 가치 증명할 것”

광주 FC의 미드필더 여름이 조연이 아닌 주연을 꿈꾸고 있다.

어느새 고향팀에서 맞는 5번째 시즌이다. 그라운드에서 오를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막내는 어느새 가장 오랜 시간 광주의 유니폼을 입은 터춧대감이 됐다. ‘삼총사’로 통하던 창단멤버 형 임선영과 친구 김호남이 각각 군복무와 제주 이적으로 팀을 떠나면서 여름 홀로 남았다.

강등의 서러운 눈물과 승격이라는 감동의 눈물을 동시에 흘린 유일한 산증인인 여름은 광양 1차 캠프 초반 임시 주장이라는 역할도 담당했다. 달라진 자리는 여름의 마음도 달라지게 했다.

여름은 “처음에는 형들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고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함께 했던 친구 (김)호남이가 떠나면서 허전한 것도 있지만 그라운드에서 대결을 할 생각을 하면 설렌다.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서 어떻게 견제를 해야할지 전략은 짜두었다”고 웃었다.

고참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묵직해진 여름. 축구 선수 여름으로서의 욕심도 커졌다. ‘운이 좋았던 선수’에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는 게 올 시즌 목표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선수인 것 같다. 대학시절에도 경기를 거의 못 뛰다가 선수들의 공백이 생기면서 운이 좋게 기회가 왔고 광주에 입단을 하게 됐다. 광주에서도 첫 해 성적으로는 방출이 됐어야 하는데 팀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운이 좋게 살아남았다”고 고백을 한 여름.

조연으로 살아왔던 그는 승격이 결정되던 날 뜨거운 이름이 됐다.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절호의 골 찬스를 놓치면서 땅을 쳤던 여름은 승격을 확정짓는 김호남의 골을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올 시즌에는 더욱 자신의 이름이 뜨겁게 불리기를 바라고 있다.

여름은 “무작정 열심히 뛰었지만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고 옆 사람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법도 알게 됐다”며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했었다면 올 해는 욕심을 부리고 싶다. 골도 넣고 주먹을 받고,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 부지런히 뛰는 선수이자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꼭 있어야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주연을 꿈꾸는 그는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을 들고다니고 있다. 손으로 직접 적은 올 시즌 목표를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에 저장해두었다. ‘상위 스플릿 진입, 부상 없는 시즌, 전경기 출장, 포인트 10개, 개인상, 상무·경찰청 입대’가 그가 눈과 마음에 담고 다니는 목표다.

여름의 2016 목표

상위 스플릿 진입

부상 없이 전경기 출장

포인트 10개·개인상

여름은 “항상 보면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목표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 꼭 이루고 싶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시즌이라 각오가 남다르다”며 “상위 스플릿에 가고 싶다. 특급 선수들로 채워진 팀은 아니지만 끈끈함으로 많은 것을 이룬 팀이다. 11명의 선수가 움직이는 거니까 두려움은 없다. 조직력, 융화력으로 멋진 시즌을 만들고 싶다. 중원에서 부지런히 뛰고 역할을 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6시즌 주인공을 꿈꾸는 광주 FC의 미드필더 여름이 올 시즌 목표를 적어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J리그 미드필더 김정현 영입

프로축구 광주 FC가 중원 강화를 위해 J리그에서 활약한 김정현(22)을 영입했다.

광주는 18일 “J2리그 오이타 트리니타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김정현을 영입해 훈련에 합류시켰다”고 밝혔다.

서울 중동고 재학시절부터 중원의 테크니션으로 눈길을 끈 김정현은 U-15, U-17, U-18 청소년대표를 지낸 에이스로, 2012년 일본 프로축구 오이타 트리니타에 입단했다. 데뷔 첫해 무릎부상으로 인해 2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출장수를 높이며 경기력을 회복했다. 통산 29경기에 나서 2득점을 올렸다.

김정현은 185cm·80kg의 체격으로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득점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톱패스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현은 “광주의 활약상을 듣고 일본에서 경기를 찾아왔다. 광장이 매력적인 팀이라는 게 느껴졌다”며 “아직 부족하지



만 팀이 원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6 K리그는 ‘탁공’…다득점>득실차 적용

2016 K리그에서는 승점이 같을 경우 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상위 순위에 오르게 된다. 득점 증가를 통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골득실차 대신 다득점이 우선 적용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권오갑 총재)이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6년 제1차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K리그 순위 결정 방식을 바꿨다. 작년까지는 ‘승점-득실차-다득점-다승’의 순으로 순위가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승점-다득점-골득실-다승’ 순으로 적용된다. K리그 클래식은 물론 챌린지와 4년 만에 부활하는 2군 리그(R리그)에도 적용된다.

R리그는 클래식 6팀(전북·수원·서울·성남·울산·인천), 챌린지 8팀(부산·대전·대구·서울·이랜드·부천·고양·안산·충주) 등 총 14팀이 두 개조로 나눠 대결을 벌이게 된다. R리그는 저비용 운영을 원칙으로 해 시상제도나 수당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권역 내 이동을 통한 비용 최소화

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경기장 내외의 상업적 권리의 소유권은 경기 2일 전부터 경기 1일 후까지 대회 주관 연맹 및 구단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해 수원 삼성이 수원월드컵경기장내 상업권리를 놓고 관리재단과 충돌한 적이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초도평방지규정’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한국도평방지위원회가 K리그의 도핑 검사, 판결, 징계 등 도핑 관련 모든 사안을 직접 운영한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안전 경찰청 프로축구단은 안산 무궁화 FC로, 고양HiFC는 고양자이크로FC로의 팀명 변경을 승인했다.

총회에서는 허정무 부총재가 유임됐고, 박세연 전남 대표이사와 변명기 부산 대표이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슈틸리케 감독, U-23 이라크전 관전키로

올리 슈틸리케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출전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과 만난다.

대표팀 관계자는 유럽에서 휴가 중인 슈틸리케 감독이 18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시 30분 카타르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는 20일 오전 1시 30분에 열리는 한국과 이라크의 조별예선 3차전을 관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표팀 숙소인 도하의 래디슨 블루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가 열리기 전 호텔에서 머니 선수들을 만나 인사를 나눌 가능성도 있다. 또한 훈련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표팀 관계자는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경기 전에 선수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슈틸리케 감독의 뜻에 따라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의 도하 방문 목적은 올림픽 대표팀 선수 중에서 월드컵 대표팀으로 발탁할 자원을 찾겠다는 목적보다는 격려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게 대한축구협회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속팀이나 나이 등 조건과 상관없이 선수의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슈틸리케 감독의 특성상 눈에 띄는 선수를 전격적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올림픽 대표팀 멤버 중에선 수비수 연제민(수원)과 이슬찬(전남)을 비롯해 골키퍼 구성윤(문수도레 샤프로), 미드필더 이창민(제주)과 공격수 김현(제주)이 50명의 월드컵 대표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연합뉴스

박기용·지우 ‘빙속 남매’ 월드컵 금 5개 합작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유망주인 ‘남매 선수’ 박기용(19·의정부고)과 박지우(18·의정부여고)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합작했다.

박지우는 18일 이탈리아 트렌티노의 바셀가 디 피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m에서 4분22초4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나탈리 케르쉬바움마이어(체코·4분25초46)를 3초06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1,500m 우승에 이어 팀추월에서도 박초원(단국대), 장수지(유봉여고)와 호흡을 맞춰 1위를 차지한 박지우는 3,000m 금메달 추가로 3관왕의 기쁨을 맛봤다.

박지우보다 1살 많은 ‘진오빠’ 박기용은 2관왕에 올랐다. 전날 치러진 남자 1,500

m에서 1분52초45로 금메달을 딴 박기용은 곧바로 이어진 팀추월에 오현민(판곡고), 이해영(의정부고)과 함께 출전해 우승해 금메달을 추가했다.

박기용은 이날 남자 3,000m에 나섰지만 네덜란드의 마르셀 보스커(3분57초22)에게 0.31초 뒤진 3분57초5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 아쉽게 3관왕 달성에는 실패했다.

한편, 박초원은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6분5초56의 기록으로 글로리아 말파티(이탈리아·6분6초62)를 1.06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 팀추월 우승에 이어 2관왕이 됐다.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나현 이해영은 보스커(5분14초86)에게 0.42초 뒤진 5분15초2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피겨 유망주’ 유영이 18일 서울 노원구 태릉실내빙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해지고 올림픽 금 딸 거예요”

‘피겨 영재’ 유영 태릉빙상장 복귀

“국가대표가 안 돼서 속상했지만 태릉빙상장에서 대표팀 언니들과 다시 훈련하게 돼 아주 좋아요.”

한국 피겨 여자싱글의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른 ‘12살 피겨 요정’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배려로 태릉실내빙상장에 다시 선 유영(문원초)은 대표팀 언니들과 없이 스텝없이 어울리며 훈련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유영은 18일 태릉실내빙상장에서 오전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주변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해야 한다”며 수준은 미소를 띠었다.

2004년에 태어난 유영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시니어부에서 만11세 8개월의 나이로 우승, 김연아(26)가 지난 2003년 이 대회에서 작성한 역대 최연소 우승(만 12세 6개월) 기록을 경신하며 ‘포스트 김연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유영은 올해 1월1일부터 2003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선수만 대표선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어쩔 수 없이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이 때문에 유영은 대표선수만 사용할 수 있는 태릉실내빙상장도 사용할 수 없게 돼 기량 발전에 걸림돌을 만나는 위기를 맞았다.

연맹은 지난 17일 ‘빙상 영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훈련 지원 방안을 마련, 유영에게 태릉빙상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영은 연맹의 결정에 따라 피겨 국가대표 전담팀(의무·체력·안무·무용)의 지원을 받게 됐고, 국제 대회 파견 등의 도움도 얻었다.

또 자신의 ‘롤모델’인 김연아(26)가 소속된 올댓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까지 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게 됐다.

유영은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도 국가대표가 되지 않아 속상했는데 태릉빙상장에서 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롤모델인 (김)연아 언니를 가끔 태릉빙상장에서 봤는데 이제 같은 소속사가 되면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기분이 좋다”고 덧붙혔다.

“최근에 유명해지고 나서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웃음을 보인 유영은 “앞으로 유명하고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유영은 국제무대에 대비해 고난도 점프인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과 쿼드러플 살코(공중 4회전)도 연습하고 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트리플-트리플 점프 콤비네이션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린 뒤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무기로 준비하겠다는 생각이다.

원숭이띠인 유영은 “원숭이해를 맞아 올해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실수 없는 ‘클린 연기’를 펼치고 싶다”며 “곧 다가올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